

제1절 대한제국기 의병항쟁*

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항쟁은 1894년 후반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이래 약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특히, 일본의 침략과 내정간섭이 강화될수록 의병항쟁도 거세어졌다. 이를테면 1895년의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단발령 그리고 1896년의 의관제도의 개정과 아관파천시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곧 제1차 의병의 발미가 되었던 것이다.

1904~1905년을 전후하여 의병항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1904년의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그리고 1905년의 을사늑약 등과 같은 일제의 정치적 침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제2차 의병이라 한다.

1907년 후반 이후 약 2년여 동안 벌어진 의병투쟁은 가장 격렬하여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1907년 들어 일제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그리고 군대해산 등을 단행하여 조선의 주권을 유린하였다. 이무렵 경제적 침탈이 가중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조선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됨으로써 의병에 투신한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바로 이 시기가 제3차 의병에 해당된다.

1907년부터 약 5년간 일본 군경과 교전한 의병의 숫자는 14만여 명이나 되었으며,¹⁾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1만 4,566명의 의병이 일제의 총칼에 살육되었다.²⁾ 당시 의병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의병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제3차 의병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박은식(朴殷植)이 언급한 바 있는데, 다음의 기록이 그것이다.³⁾

* 제1절은 홍영기(洪英基) 집필임.

1) 『朝鮮暴徒討伐誌』, 독립운동사자료집』3, 1971, 827~829쪽.

2) 朝鮮總督府警察局, 『暴徒에 관한 編冊』(정부기록보존소, 문서번호 88-19, 필름번호 88-606), 1121쪽.

3)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상해 維新社, 1920(『朴殷植全書』상, 1975, 24쪽).

대개 각 도의 의병을 말하건대 전라도가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능히 그 상세함을 알 수 없다. 이에 훗날을 기대하노라.

각 도별로 활동의 다소를 논할 때 전라도가 가장 많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후일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였는지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즉, 1908년 일본 군경과의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에서 전라도는 각각 25% 와 24.7% 를, 1909년에는 각각 46.6% 와 59.9% 를 차지하였다.⁴⁾ 그러나 1910년 8월 하순에 조선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의병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내의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의병, 특히 그 중에서도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4)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1, 1965, 294~296쪽.